

광주시, 불친절 택시 지원금 줄인다

서비스 평가제 도입...법인 76개사 3407대 年 2회
민원건수 등 5개 항목 평가...회사 등급별 차등 지원

#1. 지난 1월 5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택시를 탄 손님 A씨는 목격자(신안동)에 도착하기도 전에 택시기사가 내지는 욕설을 듣고 중간에 내려야 했다. 택시기사가 선택한 길과 A씨가 원하는 길이 달랐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택시기사가 ‘길은 내가 정한다. 참견 말고 지금 당장 내리라’며 욕설을 했다. 이걸 너무한 거 아니냐”고 광주시에 신고했다.

#2. 지난 1월 14일 남성 B씨는 광주공항에서 화순지역의 한 파출소를 가려고 택시를 탔다 깜짝 놀랐다.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고 임의로 3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갈 길이 급한 B씨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 뒤 ‘부당요금 징수’라며 광주시에 신고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임은 미터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속적인 업체 지도점검, 운전원 친절교육에도 매년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 불편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는 등 시민 불편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매년 서비스 평가를 받아왔던 것과 달리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그간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 대상은 광주시 법인 택시 76개사, 3407대이며 20명으로 꾸려진 4개의 평가

반이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한다.

평가사항은 전화민원 건수, 운전원 자격 관리 실태, 안전운행 및 택시 불법 개조 적발 건수, 시민 모니터 현장 친절도 평가, 직원복지 등이다.

광주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택시 회사별 순위를 5개 등급으로 매겨 폐차에 따른 신차 구매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신차 구매시 지원금이 1대당 30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최고 40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까지 배 차이가 난다. 광주시는 차량 구매 지원비로 15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택시 서비스 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일 76개 업체 영업부장 회의를 열어 평가 배경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와 달리 개인택시(4802대)는 택시별 민원 발생 건수를 평가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차등지원한다.

광주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택시서비스 평가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전체 교통 관련 민원 중 택시불편 신고가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시민 불편이 컸기 때문이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총 19% 건의 교통불편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 1193건(59.7%)이 택시불편 신고였다.

신고 유형으로는 불친절 357건, 승차거부 215건, 부당요금 173건, 미터기 미사용 15건, 호객행위 8건, 승강장 질서 문란, 카드결제 거부 등 기타사항 425건이었다. 지난 2014년에는 1324건이 접수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지원 헬기 광주 추락 원인은 ‘조종 과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지원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복귀하려다 광주 도심에 추락해 5명이 숨진 소방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조종과실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발생 1년8개월만에 사고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고 9일 밝혔다.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는 세월호 희생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춘천비행장으로 복귀하고자 2014년 7월17일 오전 10시49분께 광주공항을 이륙해 상승하던 중 4분만인 10시53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했다. 헬기는 추락과 동시에 폭발성 화재가 났고 조종사 2명과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가 상승 직전비행하던 중 조종사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폐달을 밟아 회복할 수 없

는 급경사가 발생해 추락했다”고 결론내렸다.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결과, 사고 당일 10시52분19초부터 우측 폐달 입력으로 우경사가 시작돼 10시52분51초에 우경사 180도를 초과해 추락했다.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통해 10시52분38초에서야 부기장이 “잠깐만”이라며 헬기의 자세 이상을 알아채고 곧바로 기장이 “어!! 자세 보세요. 넘어가 넘어가”라는 음성이 확인됐다.

조사위는 ▲사고기 조종사들이 계기비행을 할 수 없는 (자격상실)상태에서 계기비행을 함 ▲항공구조대의 조종사 훈련 및 자격관리 미흡 ▲사고기 조종사들의 충분하지 못한 계기비행 경험과 미흡한 준비 ▲항공구조대장의 지휘여건 미흡을 사고 기여요인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신나는 개불 사냥...강진으로 오세요

9일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주민들이 마을 앞 복섬에서 개불잡이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2년에 한번 마을 단위로 개불 수확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13일 강진사초개불축제를 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0

해질녘 07:30

해질녘 18:36

날짐 20:02

오전엔 추워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차차맑아짐	-2/6	보성	차차맑아짐	-3/6
목포	차차맑아짐	-1/3	순천	차차맑아짐	0/8
여수	차차맑아짐	0/7	영광	차차맑아짐	-3/4
나주	차차맑아짐	-2/6	진도	차차맑아짐	0/3
완도	차차맑아짐	0/5	전주	맑음	-3/5
구례	차차맑아짐	-3/7	군산	맑음	-3/3
강진	차차맑아짐	-1/5	남원	맑음	-3/6
해남	차차맑아짐	-2/4	흑산도	차차맑아짐	0/3
장성	차차맑아짐	-3/4			

◇바다 날씨

	오전	오전	오전	오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5~3.0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0.5~1.5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2:54	08:12
	15:22	20:36
여수	10:10	03:43
	22:26	16:10

◇주간 날씨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3/5	-2/11	2/12	3/14	3/15	4/16	5/17

◇생활지수

	관심
	보통
	낮음
	피부질환

사립학교 비전공 과목 못가르친다

광주교육청 ‘순회교사제’ 시행...전문성 향상

광주지역 사립학교 상치(相馳) 교사(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2~3개 학교를 돌아가며 수업하는 ‘순회교사’제가 올해부터 공립 뿐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운영되면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사립학교 상치교사 문제 해결을 위해 중·고교 교사들이 인근 2~3개 학교를 돌아가며 수업하는 ‘순회교사제’를 새 학기부터 도입, 시행하면서 상치교사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현재 54명이 법인 내 순회교사로 활동하며 중·고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다. 또 4명의 교사는 수피아여중과 대성여

중, 송일중과 동아여중, 보문고와 송일고 등 법인 간 순회교사로 미술, 국어,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서진여고 상업 전공 교사 2명은 상업 전공 교사가 부족한 공립학교인 경영고에 지원을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아울러 순회교사 도입이 어려운 학교를 감안, 올 해 사학지원 교사 2명을 임용해 교육 현장에 투입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순회교사제 도입으로 교육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국·영·수에만 집중하는 교육과정 파행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대법 “정부 정책 비판하며 욕설, 모욕죄 아니다”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든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비슷한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욕설을 섞어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

가원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심평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을 다는 등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DreamHub GUNSAN

군산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

2016

일시 : 2016. 4. 10 SUN 8:00

장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참가신청기간 : 2016. 1.10~3.18(60일간)

마라톤사무국 : (063) 465-7731

군산시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군산시민체육회

군산시육상경기연맹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육상경기연맹